

## 한국어교육 문법체계에서의 보어 설정 문제

이금희\*

### <목 차>

1. 서론
2. 연구사
3. 보어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격표지 실현 양상
4. 한국어교육 문법체계에서의 보어 설정 문제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학교문법과 이론문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할 수 없고 그 범위도 한정하기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 문법에서 제시된 ‘되다, 아니다’ 서술어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는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교육학에서의 문법교육론 수업에서 이를 교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보어라는 문장성분으로 묶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들과 같은 문형을 갖는 다른 서술어의 명사구들은 왜 보어가 아닌지를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학 문법교육론에서는 ‘보어’라는 문장성분보다는 구문문법 이론에 입각한 문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설정하지 않고 형용사 구문이나 일부 자동사 구문이 두 개의 주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주어로 보고 한국어에는 ‘NP1-이 NP2-이 V/A’ 구성을 갖는 서술어들이 존재함을 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주제어] 한국어교육학, 문법교육론, 구문문법, 문장성분, 보어, 문장 유형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단어의 성질과 기능을 분류하는 품사 못지않게 문장성분이라는 문법 범주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성분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명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데 한국어의 경우 해당 명사구에 어떤 조사가 결합하는지를 통해서 주로 드러난다. 주어에는 ‘이/가’가 결합되고, 목적어에는 ‘을/를’, 그리고 부사어에는 그 명사구의 의미 기능에 따라 ‘에, 에서, 으로’ 등이 결합된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성분은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는데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설정하며 이들은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보고 있다. 부속성분인 관형어, 부사어는 명사와 동사를 수식하는 문장성분으로 생략되어도 문장을 이루는데 큰 문제가 없는 수의성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보어’는 다른 문장성분들에 비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항목 또한 제한적이다.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가 그 항목이 제한되지 않고 문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으로 정의되는 것과 달리 보어는 ‘아니다, 되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로 한정하고 있고, 다른 성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문장성분들이 서술어와의 관계나 다른 성분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찍이 ‘보어’에 대해 범주 설정 여부에서부터 그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보어’에 대한 범주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논의에서부터 주어를 제외하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모든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보어’가 과연 어떤 문장성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학의 문법교육론에서는 과연 ‘보어’라는 문장성분은 유용한 범주인가? 문장성분은 주로 문장 유형을 설명하고 분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언어 교육 시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어교육학과 관련된 여러 문법서와 사전에서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설정되어 설명되고 있다.<sup>1)</sup>

본고는 한국어 문법교육학에서 ‘보어’라는 문장성분의 개념이 현재와 같이

정의되는 것이 과연 유용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보어로 지정된 성분들이 현재 문법서에 제시된 것처럼 ‘되다, 아니다’에 선행되는 성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어도 되는지와 문장성분의 필수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함께 보어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사

보어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크게 한국어 문장성분에서 보어를 인정하는 논의와 인정하지 않는 논의로 나뉘고, 보어를 인정하는 논의에서는 특정 서술어에 선행하는 ‘이/가’ 조사가 결합한 명사구만을 보어로 보는 논의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 중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보어로 보는 논의로 나뉠 수 있다.

한국어 문장성분에서 보어 성분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논의한 연구로는 허웅(1983)으로 문장성분을 분류함에 있어 그 의미 내용에 따르지 않고 형태상의 특질에 따라 정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서 조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성분을 나누어 ‘보어’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정렬모(1947)와 민현식(1999)에서도 한국어의 문장성분에서 보어 설정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민현식(1999:223-233)에서는 보격으로 본 예들의 격 형태는 주격과 부사격 조사와 해석상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보어성의 판단이 주관적인 의미 기준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보어가 필요한 불완전 용언의 목록이 매우 유동적이고 어휘항마다 일일이 판단하고 기억해야 하는 문법 기술상의 부담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들과 달리 그동안 한국어 문장성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보어 범주를 인정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초기의 논의인 안확(1923), 박승빈

1) 한국어교육에서 자주 이용되는 문법서로는 임호빈 외(1997), 백봉자(1999/2009),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005)’가 있고 백파사전식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인 ‘한국어교육학사전(2014)’가 있는데 이들 모두 ‘보어’라는 문장성분을 설정하고 있다.

(1931), 최현배(1937), 이희승(1949) 등에서는 용어와 범주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성분으로 보어를 문장성분에 포함하였고, 이런 전통문법의 보어 개념을 김민수(1971), 성광수(1974/1999), 서정수(1994), 최호철(1995), 임홍빈·장소원(1995), 이홍식(2000), 최형강(2004) 등에서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보어 범주를 한국어 문장성분에 포함하는 많은 논의는 그 범위 면에서 ‘이다’나 ‘아니다’, ‘되다’ 등의 서술어에 선행하는 조사 ‘이/가’가 결합되는 명사구만을 보어로 보는 논의와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성분을 모두 보어로 보는 논의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논의가 최현배(1937)인데, 이 논의는 학교문법에 영향을 주어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이/가’가 결합한 명사구를 보어로 설정하도록 했다. 후자에 대한 논의로는 김민수(1971), 서정수(1994), 최호철(1995), 임홍빈·장소원(1995), 이홍식(2000), 최형강(2004) 등이 있는데 김민수(1971:89)에서는 보어는 의미상 서술어의 완성에 요구되는 요소로 보고 ‘에게, 과, 이, 에, 보다, 으로’가 결합하는 다양한 명사구를 보어로 보고 있다. 임홍빈·장소원(1995:228-229)에서도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을 보어로 규정하고 ‘철수가 영희에게 집에 가라고 설득하였다.’의 ‘집에 가라고’와 ‘우리는 그것을 꽃이라 부른다.’의 ‘꽃이라’의 문장 보어(보문)와 ‘철수가 떠나고 말았다.’와 ‘영희가 떠나 버렸다.’의 동사구 보문도 보어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 이홍식(1996/2000)에서는 여러 격조사가 결합한 서술어의 필수성분들을 보어로 보았고 조사의 형태에 따라 보어를 하위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서술어의 필수성분을 모두 보어로 보는 이전의 견해와 달리 다시 ‘이/가’ 조사가 결합된 명사구만을 보어로 보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유형선(1999), 양명희(2006), 송창선(2008), 이선웅(2010, 2012), 유현경(2014, 2018) 등이 그것이다. 유형선(1999)는 ‘이/가’ 조사구만을 보어로 다루어야 한다고 논의하며 보어를 의미역을 갖고 있는 논항으로 규정하였다. 송창선(2008)은 학교문법에서 ‘되다’와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고 있는데 두 용언은 품사도 다르고 ‘되다’ 앞의 ‘이/가’ 조사구는 ‘명사+으로’의 대치가 가능한 것으로 부사어로 처리해야 하고, ‘이다’를 형용사로 보고 이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구

를 보어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이선웅(2010, 2012)으로 이어지는데 이선웅(2010)에서는 문장성분과 격, 그리고 의미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보어는 격으로는 주격이나 격이 나타나지 않고 의미역으로는 ‘기준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어는 ‘주어의 정체를 밝힘’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분은 교사 이다, 이분이 제 외삼촌 되십니다, 그는 학생 같다’의 ‘교사, 제 외삼촌, 학생’과 ‘그분은 교사가 아니다, 이 돼지는 100kg이 나간다, 그분은 교사가 {맞다, 틀림없다}, 물이 구름이 된다.’의 ‘교사가, 100kg이, 교사가, 구름이’가 보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사한 논의로는 유현경(2014, 2018)인데 심리형용사, 심리자동사, 감각형용사, 감각자동사, 수량사구, 복합 술어 구문의 두 번째 명사구를 모두 보어에 포함시키는 점이 다르다. 기존의 이중주어문의 두 번째 주어 명사구까지 모두 보어로 설정하는 것이 이전의 논의들과 다른 점이다.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한국어 문장성분에서 ‘보어’는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범위에 이르기까지 아직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주이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보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문법서인 임호빈 외(1997), 백봉자(2009)나 국립국어원(2005) 모두 ‘보어’를 설정하고 있다. 임호빈 외(1997:104)에서는 학교문법과 동일하게 ‘아니다, 되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고 보격조사는 주격조사와 형태는 같으나 의미 기능에 의해 구별된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백봉자(2009)에서는 문장성분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있으나 ‘이다’와 ‘아니다’에 대해 기술하는데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형으로 ‘보어’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것은 꿈이 아니다’의 두 번째 명사구를 보어로 설명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5:73-74)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이외에 주어를 보충해 설명해 주는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는데 ‘되다, 아니다’가 그런 서술어이고 이 서술어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바로 보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학교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론 문법에서 논의한 다양한 보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문법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의 ‘보어’는 과연 유용한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범주

설정의 필요성에서부터 그 범주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는 ‘보어’라는 문장성분의 범주 설정에 대해 한국어교육학적 입장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한국어 문장 구조 이해와 생산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보어’가 그리 유용한 문법 범주는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 3. 보어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격표지 실현 양상

문장을 이루는 대표적인 문장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다. ‘주어’는 한국어의 기본 문형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고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각 성분은 주격조사 ‘이’, 대격조사 ‘을’이 결합한다. 명사가 아니더라도 ‘이’가 결합한 명사절이나 용언의 명사형, 인용된 말도 주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격조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목적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어’는 학교문법과 몇몇 논의에서는 주격조사와 같은 ‘이/가’가 결합되기도 하고, ‘보어’의 범위를 넓게 잡은 논의에서는 부사어에 결합하는 ‘에, 으로, 보다, 와’ 등의 조사도 결합한다고 교육해야 하므로 한국어의 ‘보어’는 격 표지상으로는 다른 문장성분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격조사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보어’를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주어는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의미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속성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05:59-63). 그러나 주어를 서술어의 주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으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행위주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험주나 상태나 성질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주어를 하나의 의미 속성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 (1) 가. 영희가 밥을 먹는다. (행동주역-주격-주어)
- 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대상역-주격-주어)
- 다. 내가 지금 너무 춥다. (경험주역-주격-주어)
- 라. 책상이 더럽다. (대상역-주격-주어)

(1가~라)의 ‘영희가, 문이, 나는, 책상이’는 모두 주어인데 행위주역으로도 해석되고 경험주역이나 대상역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격조사 ‘이/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뿐이다.

이는 목적어의 경우도 같은데 의미적으로 행위의 대상이나 행위 결과, 행위의 목적 등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대격조사 ‘을/를’이 결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계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학교문법에서나 한국어교육학에서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로 형용사 ‘아니다’와 자동사 ‘되다’에 선행하는 문장성분이다. ‘아니다’에 서는 선행하는 명사구와의 관계에서 주어가 어떤 대상이 아님을 부정하는 부정의 대상에 해당하고, ‘되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주어가 어떤 결과상태가 되었다는 결과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역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 (2) 가. 철수는 선생님이 아니다. (대상역-주격)  
 나. 영희가 선생님이 되었다. (결과상태역-주격)  
 다. 얼음이 물이 되었다. (결과상태역-주격)  
 다. 얼음이 물로 되었다. (결과상태역-부사격)  
 다. 얼음이 물로 변했다. (결과상태역-부사격)  
 라. 교수님은 영희를 머느리로 삼았다. (결과상태역-부사격)

대표적인 보어로 보는 (2가~다)의 ‘선생님이, 물이’는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의미역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창선(2008:89)에서는 문장성분을 명사구가 서술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2다)의 ‘물로’도 보어로 보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2다)의 ‘물로’나 (2라)의 ‘머느리로’도 보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가. 그분은 교사 이다. (보어-격 없음-기준치역)  
 나. 그분은 교사가 아니다. (보어-주격-기준치역)  
 다. 철수가 사장이 {맞다, 틀림없다}. (보어-주격-기준치역)  
 라. 이 돼지는 100kg이 나간다. (보어-주격-기준치역)  
 마. 이분이 제 외삼촌 되십니다. (보어-격 없음-기준치역)

- 바. 그는 학생 같다. (보어-격 없음-기준치역)  
 사. 물이 구름이 된다. (보어-주격-결과상태역)

(이선웅 2012:342 예)

이선웅(2012)에서는 보어를 의미적으로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기능을 갖는 문장성분’이고 격으로는 주격이나 격이 없고, 의미역으로는 주로 기준치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3가, 나)의 ‘이다, 아니다’ 서술어가 쓰인 경우 주어를 긍정하고 부정하는 기준으로 보어 ‘교사’가 쓰인 것이므로 기준치역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보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보어를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기능을 하는 성분이라고 하여 다른 문장성분들처럼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통해 보어를 정의하였다는 점과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격이나 의미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3사)의 결과상태역에 해당하는 ‘되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다른 경우와 함께 보어로 포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논의에 따르면 (4가)의 ‘작가’는 주격조사가 결합하고 주어인 철수의 성향이나 자질을 나타내는 말로 서술어를 판단하는 기준치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작가’를 보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가)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갖는 (4가)의 ‘영희’의 경우는 주어인 ‘철수’의 정체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성분은 아니다. 이런 경우 ‘영희’를 보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때 같은 문장구조의 성분인 (4가)의 두 번째 명사구와 (4가)의 두 번째 명사구를 문장성분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3라)의 ‘100kg’를 보어로 보면서 (4나)의 ‘두 송이’는 보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어가 주어의 ‘정체성을 밝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4다)의 ‘범인’도 보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가. 철수는 (선생보다) 작가가 {맞아/어울려}.  
 가. 철수는 (순희보다) 영희가 {맞아/어울린다}.  
 나. 꽃이 두 송이가 {있다/피었다}.  
 다. 그는 범인이 {분명하다/확실하다}.



보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인 유현경(2018)에서는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선웅(2010, 2012)과 같이 보어의 범위를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명사구로 한정하고 있다. 차이점은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명사구만이 아닌 ‘서술어의 대상을 지정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정의하면서 ‘좋다, 싫다, 알맞다’ 등의 심리형용사, ‘겁나다, 걱정되다, 그리워지다, 참다’ 등의 심리자동사, ‘출출하다, 간지럽다, 노곤하다, 울렁거리다’ 등의 감각형용사나 감각자동사, ‘5억원이 가다, 세 살 나다, 3만원이 나가다, 2계급 승진하다, 일흔이 넘다’ 등의 수량사구, 그 외의 복합 술어인 ‘실감이 나다, 수궁이 가다, 짐작이 가다, 동정이 가다’ 등의 선행 명사구를 모두 보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술어의 대상을 지정함’이라는 보어에 대한 정의는 ‘둘이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이 요즘 잘 나간다.’의 자동사 ‘어울리다, 나간다’ 등에 선행하는 명사구들과 ‘날씨가 흐리다, 꽃이 예쁘다, 책이 두껍다’의 형용사 ‘흐리다, 예쁘다, 두껍다’ 등에 선행하는 명사구들이 갖는 의미 특성과 같은 것으로 과연 보어로 설정되는 것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둘이 잘 어울린다’와 ‘꽃이 예쁘다’의 ‘둘이, 꽃이’도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이고 ‘철수는 작가가 맞다.’와 ‘나는 꽃이 예쁘다’의 ‘작가가, 꽃이’도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인데 전자는 주어로 보면서 후자는 보어로 볼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유현경(2018)에서는 보어의 범위와 유형을 제안하면서 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기술하였다.

(5) 가. 조사 ‘가’가 붙는다.

나. 주된 의미적인 기능은 서술의 대상이다.

다. 관계관형절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없다.

(목적어와의 차이점)

ㄱ. 가영이는 김치를 담갔다. → 가영이가 담근 김치

ㄴ. 가영이는 교사가 되었다. → \*가영이가 된 교사

ㄷ. 나는 가영이가 좋다. → \*내가 좋은 가영이

라.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이다.

마. 결합되는 조사 ‘가’가 생략이 가능하다.

(부사어와의 차이점)

- ㄱ. 가영이는 민지의 의견에 반대한다.
- ㄱ'. \*가영이는 민지의 의견 반대한다.
- ㄴ. 가영이는 민지를 친구로 여긴다.
- ㄴ'. \*가영이는 민지를 친구 여긴다.
- ㄷ. 가영이는 교사가 되었다.
- ㄷ'. 가영이는 교사 되었다.
- ㄹ. 나는 착한 사람이 좋다.
- ㄹ'. 나는 착한 사람 좋다.

(유현경 2018:139-140)

(5가, 나, 라, 마)는 주어에서도 보이는 특성이므로 (5다)만이 주어와 보어를 가를 수 있는 특성이 된다. 보어가 관계관형질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없는 특징은 이전의 논의들에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었던 것이다.(고영근·구본관, 2008)

- (6) 가.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 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철수
- 가". 철수가 편지를 넣은 우체통
- 가"''. 철수가 우체통에 넣은 편지
- 나. 광희가 교수가 되었다.
- 나'. 교수가 된 광희
- 나". \*광희가 된 교수
- 다. 영희는 선생이 아니다.
- 다'. 선생이 아닌 영희
- 다". \*영희가 아닌 선생

(6)에서 보듯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는 모두 관계관형질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있는데 (6나')나 (7다')에서 보듯이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표제 명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선웅(2010:78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계관형질의 명사 수식 여부는 통사적으로 어느 성분이 서술어와 더 가까운지를 보여 주는 현상일 뿐이지 선행 명사가 주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가. 아버지는 철수를 사위로 삼았다.

가'. 철수를 사위로 삼은 아버지

가". \*아버지가 철수를 삼은 사위

나. 그는 여자를 외모로 판단한다.

나'.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그

나". \*그가 여자를 판단하는 외모

(7가, 나)에서도 ‘철수를 사위로 삼은 아버지’나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그’는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철수를 삼은 사위’나 ‘그가 여자를 판단하는 외모’는 부자연스럽다. ‘사위로, 외모로’가 관계관형절의 표제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서술어와의 관계가 다른 명사구들보다 밀접하기 때문으로 이들을 보어로 보지 않는 이상 관계관형절의 표제 명사의 여부가 보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8) 가. 토끼가 앞발이 짧다.

가'. 앞발이 짧은 토끼

가". \*토끼가 짧은 앞발

나. 이 집안이 아들이 귀하다.

나'. 아들이 귀한 이 집안

나". \*이 집안이 귀한 아들

다. 이 꽃이 향기가 풍긴다.

다'. 향기가 풍기는 이 꽃

다". 이 꽃이 풍기는 향기

(8)은 이중주어문의 대표적인 예인데 (8가, 나)의 ‘이/가’가 결합하는 두 번째 명사구는 관계관형절의 표제 명사로 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8다)의 경우는 (8다')가 가능한데 다른 두 문장과는 차이점은 ‘이 꽃이 향기가 풍긴다.’는 ‘이 꽃이 향기를 풍긴다’처럼 ‘풍기다’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문장도 가능한 경우로 (8다')는 전자가 관형절이 된 것이 아닌 후자가 관형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가 주어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는 관계관형절의 표제 명사 여부는

보어를 다른 문장성분, 특히 주어와 구별 짓는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보어로 보는 주장들의 또 다른 근거는 주격조사 ‘이/가’의 높임의 대상에는 ‘께서’가 결합하는데 보어 명사구에는 ‘께서’가 결합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9) 가. 아버지가 선생님{\*께서/이} 되셨다.

나.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가} 아니다.

(9가, 나)의 ‘선생님’이나 ‘할아버지’에는 ‘께서’ 결합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0)과 같은 이중주어문의 두 번째 주어들에게도 ‘께서’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10) 가. 할아버지께서 무서우시다.

가. 나는 할아버지{\*께서/가} 무섭다.

나. 언니가 얼굴이 곱다.

나. 할머니께서 얼굴{\*께서/이} 고우시다.

다. 철수는 영희가 그리워졌다.

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께서} 그리워지셨다.

(10가)의 ‘무섭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서술할 경우 주어 명사구 하나를 요구하고 그 주어에 ‘께서’를 결합할 수 있으나 (10가)처럼 심리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두 개의 명사구를 요구하는데 이때 두 번째 명사구에는 ‘께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두 문장에서 ‘무섭다’ 서술어에 선행하는 ‘할아버지’는 모두 서술어의 대상으로 같은 문장성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나, 다)의 이중주어문에서도 ‘얼굴, 영희’ 대신에 (나)와 (다)처럼 높임의 대상이 오게 되었을 때 ‘께서’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는 ‘께서’의 결합 가능 여부가 문장성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 명사구의 자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께서’의 결합 여부가 보어와 주어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현경(2018)에서 필수부사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특징으로 (5마)처럼 격조사의 생략 여부를 들었는데 필수부사의 경우도 적당한 맥락만 주

어진다면 격조사의 생략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마)는 문어체적인 문장이어서 조사 생략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나 (11가, 나)처럼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부사어도 격조사의 생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 (11) 가. 난 민지 의견 반대! / 난 민지 의견 반대해.  
나. 가영이는 민지를 친구 삼아 요즘 잘 놀아.

(5마)의 ‘나는 민지의 의견에 반대한다’, ‘가영이는 민지를 친구로 삼아 요즘 잘 놀다.’와 같은 문장에서 ‘의견에, 친구로’처럼 조사가 결합하나 구어체 문장인 (11가, 나)의 경우는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어도 자연스럽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보어’의 통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의 필수성분이나 격조사 ‘이/가’가 결합하는 특징, 관계관형절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 그리고 주격조사 ‘께서’의 결합 불가능성은 문장성분에 과연 보어라는 성분이 존립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나 외국 대학이나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보어의 특징으로 공통된 의미 특성이나 격조사의 실현 여부 등을 통해 주어와 구별해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sup>2)</sup> 그러므로 한국어교육학 문법교육에서 문장성분으로 ‘보어’를 설정하는 것은 설명력을 얻기 어렵다.

#### 4. 한국어교육 문법체계에서의 보어 설정 문제

한국어교육학 문법서에서는 학교문법과 기존 국어문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어’를 ‘되다’와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해외 대학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법서를 번역해 사용하거나 자체 문법서를 사용하는데 이들 문법서에서도 ‘보어(보충어)’를 설정하고 있다.<sup>3)</sup>

2) 중국어 문법에서 ‘보어’는 서술어 또는 목적어 뒤에 결합해 서술어가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 의향, 정도 및 시간, 장소 등의 측면에서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문장성분임으로 한국어의 보어와 1:1 대응이 어렵다.(맹주익 1987:309)

3) 최윤곤(2015)에 따르면 중국 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서를 살펴보면 ‘한국어문

<보어>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함.

예) 가. 그는 대학생이 되었다.

나. 나는 바보가 아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국립국어원), p 73』

그러나 3.1절에서도 살폈듯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문장성분은 ‘되다, 아니다’ 외 여러 자동사들에서 나타나고 이들이 서술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동사나 형용사의 주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 가. 영화는 선생님이 되었다.

나. 이달 잡지책은 표지가 노란색이 되었다.

나. 이달 잡지책은 노란색이 되었다.

다. 삼촌은 체중이 100kg이 나가요.

다. 삼촌은 100kg이 나가요.

라. 할아버지가 연세가 일흔이 넘으셔.

마. 이분은 이 회사 사장이 맞아.

바. 철수가 그 반 대표임이 틀림없어.

(12가)의 ‘되다’에 선행하는 성분 ‘선생님이’를 보어로 본다면 (12나~마)의 ‘되다, 나가다, 넘다, 맞아, 틀림없다’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구들도 주어를 보충해 주는 명사구이므로 이들도 보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명사구는 주어와의 관계에서 ‘NP1은 NP2이다’라는 의미 구조를 가진 표현들로 이는 이선웅(2010)의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명사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보어는 주어와 동격 관계를 형성하는 성분들로 한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sup>4)</sup>

법(이익집, 서울대출판부)’를 번역한 ‘韓國語語法(郭一誠, 世界圖書出版公司)’나 ‘한국어문법1(국립국어원)’을 출판한 ‘最新 韓國語語法(俞春喜, 民族出版社)’, 그리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출판한 ‘現代韓國語語法(許維翰 編著)’ 등에서 ‘보어’를 문장성분으로 설정하고 있고 중국어 문법의 ‘보어’와 용어상 겹치지 않도록 ‘보충어’로 바꾼 책들도 있다.

그러나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고 있는 (13가~다)의 ‘밥, 12시,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3) 가. 밥이 거의 다 되었다.

나. 밤 12시가 넘었다.

다. 철수는 영화가 더 잘 맞는다.

(13가)의 ‘되다’에 선행하는 ‘밥’이나 (12가)의 ‘선생님’은 ‘되다’ 서술어의 결과상태인 대상이고 (13나)의 ‘12시’나 (12라)의 ‘일흔’은 ‘넘다’ 서술어의 기준이 되는 시간과 나이로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12가~바)에서는 선행 명사구를 보어로 처리하면서 (13가~다)에서는 주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문장성분이 수식과 관련된 관형어와 부사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성분들이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12가~바)의 선행 성분들도 보어라는 새로운 문장성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주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결한 설명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 (12나, 다)의 ‘100kg, 노란색’은 ‘체중, 표지’를 보충해 주는 문장성분인지, 아니면 ‘삼촌, 노란색’을 보충해 주는 문장성분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게 된다. 현재 보어의 정의대로라면 (12나, 다)에서는 ‘노란색’과 ‘100kg’이 주어 ‘표지’와 ‘삼촌’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나, 다)에서는 ‘잡지책’과 ‘삼촌’를 보충해 주는 것인지 ‘표지’와 ‘체중’을 보충해 주는 것인지 따져야 할 텐데 어떤 성분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문장성분 ‘보어’를 ‘주어’로 보게 되면 동일한 조사 ‘이/가’를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 자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에 따라 한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자리 명사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간략한 문법

4) 여기서 드는 의문은 주어와 동격 관계를 가지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명사구만을 보어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명사구들은 목적어와 동격 관계에 있고 목적어를 보충해 설명하는 명사구들이므로 주어의 보어처럼 이들도 목적어의 보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 할아버지가 그를 사위로 삼았다.

나. 회장님은 김 부장님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발탁하였다}.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러면 자동사의 ‘되다’와 형용사의 ‘아니다’만 함께 묶어 특정한 문장성분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한 자동사나 형용사 중에는 같은 서술어가 객관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NP이/가’ 하나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화자의 심리 상태나 판단을 나타낼 때는 ‘NP<sub>1</sub>이/가 NP<sub>2</sub>이/가’ 구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두 번째 명사구에 ‘NP-에, NP-보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술어의 다의적인 의미에 따라 다른 문장 유형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14) 가. 철수는 선생님이 아니다.  
       나. 영화는 선생님이 되었다.  
       다. 철수는 선생님이 맞다.  
       라. 철수는 오늘 오는 것이 맞다.

현재 학교문법이나 한국어교육학 문법서에 따르면 (14가, 나)의 ‘선생님이’는 보어로 (14다, 라)의 ‘선생님이, 오늘 오는 것이’는 주어로 보아야 하고, 이론문법의 논의에 따르면 (14가~다)의 ‘선생님이’는 보어로 (14라)의 ‘오늘 오는 것이’는 주어로 보아야 한다. 외국어로서 접근해야 하는 한국어교육학의 입장에서 왜 이들이 다른 문장성분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아니다, 되다, 맞다’ 서술어는 ‘NP<sub>1</sub>이/가 NP<sub>2</sub>이/가 V’ 구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문형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15) 가. 오늘 날씨가 좋다.  
       나. 그 사람은 성품이 좋다.  
       다. 나는 영화가 좋다.  
       라. 이곳은 놀기에 좋다.  
       마. 내 실력이 그보다 좋다.  
 (16) 가. 그 답이 맞는다.  
       나. 이것이 네 것이 맞니?

5) 실제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 문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 맞다.

라.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하나의 서술어가 문장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15), (16)에서 보듯이 서술어의 다의적인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up>6)</sup> 그러므로 서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서술어의 세부 의미에 따라 ‘NP<sub>1</sub>-이/가 V’ 구성을 가질 수도 있고, ‘NP<sub>1</sub>-이/가 NP<sub>2</sub>-이/가 V’, 또는 ‘NP<sub>1</sub>-이/가 NP<sub>2</sub>에 V’ 나 ‘NP<sub>1</sub>-이/가 NP<sub>2</sub>보다 V’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sup>7)</sup> 한국어교육학 문법교육에서도 문장의 유형을 ‘주어+ 서술어, 주어+ 주어+ 서술어, 주어+ 보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문장성분으로 제시하게 되면 (15나, 16나)는 ‘주어+ 주어+ 서술어’로 (15다, 16다)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제시해야 하는데 같은 격조사가 결합되고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왜 두 번째 명사구를 다른 문장성분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학에서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성분을 설명할 때 ‘주어+ 보어+ 서술어’ 구성은 ‘주어+ 주어+ 서술어’ 구성으로 제시하는 편이 문장 유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N<sub>1</sub>이/가 N<sub>2</sub>이/가 V’의 구문을 갖는 경우는 정해권(2016)의 논

6) 동사 ‘맞다’의 경우 그 다의적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 구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NP<sub>1</sub>-이 맞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예) 네 답이 맞는다.

② **[NP<sub>1</sub>-이 NP<sub>2</sub>-이 맞다]** :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

예) 이것도 네 것이 맞니?

③ **[NP<sub>1</sub>-이 NP<sub>2</sub>-에게 맞다]**: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예)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④ **[NP<sub>1</sub>-이 NP<sub>2</sub>-과 맞다]**: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분위기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린다.

예) 만일 내 동작이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관중이 웃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분위기와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7) 이는 Goldberg(1995)의 구문문법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구문문법은 구문 자체를 문법 단위로 설정해 ‘주어는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이고 ‘주격 조사는 주어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순환적 정의를 피할 수 있고, 주격중출 구문에서 명사구의 문장성분이나 서술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구문 자체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의에서 기술된 것처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1〉 주격중출 구문 유형 (정해권 2016<sup>8)</sup>: 153)

유형	술어 <sup>8)</sup>	변형 가능 구문
① 계사 구문	이-, 아니-	
② 변성 구문	되-	NP <sub>1</sub> 이 NP <sub>2</sub> 로 ...다
③ 대상 반복 구문	형용사/자동사	[NP <sub>1</sub> NP <sub>2</sub> ]이 ...다
④ 대상 부분 구문	성상형용사	NP <sub>1</sub> 의 NP <sub>2</sub> 로 ...다
⑤ 대상 소재 구문	존재형용사	NP <sub>1</sub> 에게 NP <sub>2</sub> 이 ...다
⑥ 심리형용사 구문	심리형용사	NP <sub>1</sub> 이 NP <sub>2</sub> 를 ...다

‘NP<sub>2</sub>’가 ‘NP<sub>1</sub>’의 정체성으로 나타내는 관계인 계사구문들과 ‘NP<sub>2</sub>’가 ‘NP<sub>1</sub>’의 변화된 대상을 나타내는 변성 구문, 그리고 ‘NP<sub>1</sub>’의 정체 NP<sub>2</sub>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대상 반복 구문과 ‘NP<sub>1</sub>’이 소유한 ‘NP<sub>2</sub>’를 나타내는 대상 부분 구문, ‘NP<sub>2</sub>’가 존재하는 ‘NP<sub>1</sub>’이 관계를 나타내는 대상 소재 구문, 그리고 특정한 심리를 갖는 대상인 ‘NP<sub>1</sub>’과 그런 감정이나 심리를 갖게 하는 대상 ‘NP<sub>2</sub>’를 나타내는 심리형용사 구문들이 주격 중출 구문을 갖는다.

(17) 가.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

나.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다. 학생이 둘이 왔다.

다'. 학생 둘이 왔다.

라. 철수가 키가 크다.

라'. 철수의 키가 크다.

마. 나는 아들이 있다.

마'. 나에게 아들이 있다.

8) 정해권(2016:139)에서는 주격중출 구문을 ‘주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보고 한국어의 다양한 주격중출 구문은 계사 구문을 기준으로 변성 구문, 대상 반복 구문, 대상 부분 구문, 대상 소재 구문, 심리형용사 구문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론적 기반은 구문문법 이론으로 기본 구문에서 다의적 주격중출 구문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 나는 그가 좋다.

바'. 나는 그를 좋아한다.

(17가~바)의 예들이 <표1>에서 제시된 각 구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N<sub>1</sub>이/가 N<sub>2</sub>이/가 V/A'의 구성을 갖는 경우 해당하는 서술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면 구문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18) 가. 영화는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다. [NP<sub>1</sub>이 NP<sub>2</sub>이...다]

가'. \*영화는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다.

나. 그는 지금 회사에 있다. [NP<sub>1</sub>이 NP<sub>2</sub>에...다]

다. 그는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 [NP<sub>1</sub>이 NP<sub>2</sub>으로 ...다]

라. 이 물건이 품질이 좋다. [NP<sub>1</sub>이 NP<sub>2</sub>이 ...다]

라'. 이 물건의 품질이 좋다. [NP<sub>1</sub>의 NP<sub>2</sub>이 ...다]

마. 이 약이 몸에 좋다. [NP<sub>1</sub>이 NP<sub>2</sub>에 ...다]

(18가)처럼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가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닌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일 때는 'NP<sub>2</sub>'에 '으로'가 결합될 수 없고, (18나)처럼 존재 형용사 '있다'에 선행하는 'NP<sub>2</sub>'가 'NP<sub>1</sub>'이 존재하는 장소나 직책일 경우에는 'NP<sub>2</sub>'에 'NP<sub>2</sub>으로'로 문형이 달라진다. 이것은 (18라, 마)의 '좋다' 서술어도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에 따라 다른 문장 유형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격 중출 구문은 서술어에 선행하는 두 명사구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다른 문장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학의 문법체계에서 한국어의 'N<sub>1</sub>이/가 N<sub>2</sub>이/가 V/A' 구성을 갖는 구문들을 '주어와 주어'나 '주어와 보어'로 나누어 설정하기보다는 서술어에 선행하는 두 명사구의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격 조사가 두 명사구에 결합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본다. 이는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조사 '이/가'는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거나 어떤 상태나 상황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서의 의미가 제시된다. 그리고 이중 주어 구문이나 보어가 들어있는 구문들은 '이/가'의 확장된 용법이나 구별된

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19) 가.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주어임을 나타낸다.

ㄱ. 아이가 자요.

ㄴ. 철수가 밥을 먹어요.

ㄷ. 꽃이 예뻐요.

ㄹ. 철수가 학생이에요.

나. ‘크다, 예쁘다, 많다’와 같은 형용사나 피동사 등과 함께 쓰여 직접적인 대상임을 나타낸다.

ㄱ. 철수가 발이 크다.

ㄴ. 철수가 성적이 떨어졌다.

ㄷ. 나는 허리가 쭈신다.

다.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럽다’ 등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떤 기분이나 심리 상태를 느끼게 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ㄱ. 저는 책이 좋아요.

ㄴ. 나는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라.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

ㄱ.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ㄴ. 수지는 스무 살이 아닙니다.

마. 지적하여 강조할 때 쓴다.

ㄱ. 배가 고프지가 않아.

ㄴ.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항목을 설명하는 양명희 외(2018)이나 강현화 외(2016)에서 ‘이/가’ 조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주격조사로서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면서 ‘보격조사’로의 쓰임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 양명희 외(2018)에서는 (19가)를 조사 ‘이/가’의 기본 의미로 제시하고 (19나~마)를 ‘이/가’의 확장된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19마)의 경우는 보조사적

9) 강현화 외(2016:99-103)에서는 주격조사의 기능을 ‘주체’라는 제목으로, 보격조사의 기능은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 쓰임으로 따로 설명을 해야 하나 나머지 구성들은 크게 동작의 행위 주체와 상태나 상황의 대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사로 이분된다.

- (20) 가. 영희가 학교에 간다.  
나. 지수가 밥을 먹는다.  
(21) 가. 밤이 어둡다.  
가. 철수는 마음이 어두워요.  
나. 날씨가 좋다.  
나. 언니는 몸매가 좋다.  
나. 철수는 영희가 좋아요.  
다. 나무가 크다.  
다. 철수가 키가 크다.  
라.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마. 1번 답이 맞았다.  
마. 철수는 지수가 잘 맞는다.  
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사. 문이 잘 열린다.  
사. 두 나라가 드디어 국교가 열렸다.

(20가, 나)처럼 자동사 ‘가다’와 타동사 ‘먹다’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주어로 나타난다. 그러나 (21가~라)의 형용사나 (21마~사)의 자동사 ‘맞다’, ‘되다’와 피동사 ‘열리다’가 서술어일 경우에는 서술어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게 된다. 현재 학교문법서나 한국어교육학

① 주체: 어떤 상태나 상황의 대상이나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 빵이 맛있어요.
- 내일 친구가 한국에 온다.
- 제가 전화를 했어요.

② 대상: 바뀌는 대상, 부정의 대상, 심리 상태의 대상을 나타낸다.

-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 이 가방은 제 가방이 아닙니다.
- 저는 제 고향이 좋아요.

그러나 ‘① 주체’에도 상태나 상황의 대상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있고 ‘② 대상’에도 대상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있어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는 ‘보어’와 ‘보격 조사’라는 범주 설정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 생각한다.

문법서에서는 (21라, 바)와 같이 서술어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보어로 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주어로 보고 있다. 국어학 논의에서는 (21가, 나, 마)까지 보어로 보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21가~다)의 서술어 앞에 놓이는 선행 명사구 ‘밤, 날씨, 나무’가 ‘어두운 대상, 좋은 대상, 큰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21가~다)에서도 선행하는 ‘마음, 몸매, 영화, 키’가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21가, 나)처럼 서술어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일 경우 서술어가 요구하는 명사구가 2자릿수로 바뀌기는 하지만 서술어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존 논의에서 (21나)의 선행 명사구는 이중주어문의 주어로 보고, (21나)는 보어로 보기도 하였으나 서술어의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른 문장 성분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2) 가. ㄱ: 오늘 날씨가 어때?

나. ㄴ: 오늘 날씨가 좋아.

나. ㄱ: 요즘 넌 어떠니?

나. ㄴ: 요즘 난 기분이 좋아.

다. ㄱ: 철수야, 난 영화가 좋아. 넌 어때?

나. ㄴ: 어, 그래? 난 지수가 좋은데.

라. ㄱ: 오랜만이지? 나 회사에 취직했어. 넌 어떻게 지내?

나. ㄴ: 어, 난 선생님이 되었어.

(22가~라)의 대화를 살펴보면 ‘어떻다’ 서술어의 자리에 ‘좋아, 기분이 좋아, 지수가 좋은데, 선생님이 되었어’가 올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서술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는 모두 서술어 ‘좋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 되거나 ‘되다’의 동사의 변화된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다른 성분으로 처리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2가)의 ‘좋다’ 서술어는 어떤 사물의 상태를 의미를 뜻하고 (22나)의 ‘좋다’는 경험주 ‘나’의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22다)의 ‘좋다’는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인 ‘나’가 ‘지수’라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술어는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선행 명사구가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는 점은 차이가 없다. 이들은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에 선행하는 모든 명사구가 서술어가 의미하는 대상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주어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격조사 ‘이/가’가 공통적으로 결합된다는 점에서도 주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격조사 ‘이/가’는 다음과 같이 의미 기능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23) 가. 타동사와 자동사의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예) 영희가 학교에 간다. / 철수가 밥을 먹는다.

나. 형용사와 일부 자동사, 피동사의 ‘상태나 속성의 대상, 변화된 대상, 부정의 대상, 심리 상태의 대상’ 등을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예) 날씨가 좋다. / 언니가 머리가 좋다. / 나는 영희가 좋다. /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 5. 결론

지금까지 보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개념 정의나 통사·의미적 특징 등에서 주어와 다른 문법 범주로 설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문법이나 이론문법에서 제시된 보어들이 한국어교육학의 문법교육에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서 주어와 구분되어 설명할 수 없어 그 유용성을 갖기 어려운 범주임을 밝혔다.

보어의 개념 정의인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이/가’가 결합된 명사구는 주어나 목적어가 서술어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나 관형어와 부사어가 다른 성분들과의 수식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과는 균형이 맞지 않은 정의로 왜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구만을 보어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보어의 특징이라고 제시된 문장에서의 필수성이나 관계관형절의 표제 명사로서의 불가능성, 높임의 격조사 ‘께서’의 결합 불가능성 등은 이중 주어문의 두 번째 명사구나 ‘삼다, 여기다, 판단하다’와 같은 타동사 구문의 부사어에도 나타나는 특성으로 서술어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갖는

관계의 긴밀성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보어만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학의 문법교육에서 ‘보어’라는 문장성분은 ‘주어’라고 보고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여러 개의 주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국어 문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간략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299~302쪽.  
 구본관 외, 『한국어문법 총론1』, 집문당, 2015, 227~229쪽.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73~74쪽.  
 김광해,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1995, 1~349쪽.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2012, 269~272쪽.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도서출판하우, 2009, 1~461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국어교육학사전』, 도서출판 하우, 2014, 597쪽.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1~1584쪽.  
 유현경 외, 『한국어표준문법』, 집문당, 2018, 419~425쪽.  
 이선웅,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2012년, 330~342쪽.  
 이흥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2000, 1~308쪽.  
 임호빈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2003, 104쪽.  
 허웅, 『국어학』, 샘문화사, 1983, 1~476쪽.

### <논문>

- 맹주억, 「중국어 문법용어 소고」, 『중국연구』 10,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87, 297~317쪽.  
 백주현,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I)-보어 설정 기준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5, 한국국어교육학회, 1982, 220~243쪽.  
 \_\_\_\_\_,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II)-보어 설정 기준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36, 한국국어교육학회, 1983, 283~297쪽.  
 배희임, 「한국어 문형 분류 시론-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중급 교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27, 안암어문학회, 1987, 761~776쪽.  
 송복승, 「국어 보어의 특성과 범위 재론」, 『한국언어문학』 제6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6~27쪽.  
 송창선,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어 설정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제43집, 국어교육학회, 2008, 84~104쪽.  
 신현숙, 「한국어 문장의 구성성분-보어를 중심으로-」, 『선정어문』 11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1, 213~266쪽.  
 안명철, 「한국어 주격 중출 구문과 보어 구문」, 『국어학』 73집, 국어학회, 2015, 35~67쪽.  
 양명희,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2006, 167~192쪽.  
 유현경,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 정합성 문제-보어 기술을 중심으로」, 『국어학』 70, 국어학회, 2014, 3~28쪽.  
 \_\_\_\_\_,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범위와 유형-『표준국어대사전』 용언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2018, 117~146쪽.  
 원진숙, 「서술어의 결합가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문형분류」, 『어문논총』 32집, 안암어문학회, 1993,

495~516쪽.

이병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비판적 분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61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6, 321~348쪽.

이선웅, 「국어의 보어와 보격에 대하여」,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2010, 777~804쪽.

\_\_\_\_\_, 「격의 개념과 분류」, 『어문연구』 4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7~32쪽.

이홍식, 「문장성분」, 『문법 연구와 자료』, 월인, 1998, 7~46쪽.

정해권, 「한국어 주격중출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국어학』 78, 국어학회, 139~164쪽.

조경순, 「국어 보어에 대한 의미 구조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2001, 685~704쪽.

최형강, 「국어의 격조사구 보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09쪽.

최윤곤,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 교재 용어 분석(III)- ‘문장 성분’과 ‘문장구조’를 중심으로-」, 『한중언어학 연구』 49, 2015, 375~401쪽.

최호철,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1995, 447~476쪽.

한정환, 「국어의 목적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유형론의 관점, 서술어의 타동성에 의한 목적어 정의」, 『한국어학』 68, 한국어학회, 2015, 271~305쪽.

Goldberg, A.,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1~271.

Hopper, P. & S.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1980, pp.251~299.

Langaker, R.,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1~562.

## A Study of the Complement Category in Gramma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Keum-hee \*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unsettled question of whether a complement can be defined as a single sentence constituent or possesses the equivalent of a syntactic structure with discernible grammatical categories for its constituents. The functionalities and syntactic structure of complements are regularly discussed in school grammar courses and in theoretical grammar.

A noun phrase that precedes a marker of the definition of a complement, *doeda* (되다)/*anida* (아니다), does not match the definitions of other sentence constituents. In addition, sentences that contain a constitu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lement need not actually contain a complement. Furthermore, a complement may not present itself as a “modified noun” in a relative clause, nor can it be affixed with the honorific nominative case *-kkeseo* (께서). All the aforementioned sentence constituent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noun phrase of a double subject phrase. Thus, a noun phrase that precedes a predicate cannot be considered automatically to hav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a complement when its proximity to the predicate is the only characteristic considered.

In Korean grammar education, a complement is a sentence constituent that does not need to be established.

---

\*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Construction Grammar,  
Sentence Constituents, Complements, Sentence Types

이 논문은 5월 19일 접수되어 6월 7일 1차 심사를 거쳐  
6월 10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이금희

소속: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메일: dawon4068@skku.edu